

제2권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 2권 5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함 · 율법이 주어진 이유

제2권 6장 1절(후반부)~4절, 7장 1~17절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 『기독교강요』 상, 418~448쪽)

? 예수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될까? 그리고 아무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 흐름 한눈에

앞 장들에서 칼빈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6장은 거기서 출발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중보자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이것이 신약에서 처음 나온 생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왕조, 선지자들의 약속 속에서 구약 성도들의 소망은 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다. 7장은 그 사이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 이 소망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소망을 붙들어 주는 장치였다.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도덕법은 세 가지 일을 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그리스도께 달아나게 하고, 사회의 악을 억누르며, 이미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일깨운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 정리하며 끝맺는다.

### 절별 정리

제6장 ·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함

 1.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예배도, 자녀 됨도 없음 (절 제목은 발체에 없어 정리자가 붙임 · 발체는 절 후반부부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다. 칼빈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읽는다. 하나는 이방 종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판정이다. 다른 하나는 구속주가 왜 율법 아래에서 택한 백성에게만 약속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예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다. 요한복음은 생명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세상이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늘의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데, 독생자의 몸에 접붙지 않은 사람을 자녀라고 부를 수는 없다. 믿음 자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3권 2장)로 미룬다.

1.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
2.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 세상은 거기서 떠남
3. 하나님의 자녀 = 그리스도께 접붙은 사람
4. 하늘 유업은 자녀에게만 주어짐
5. 믿음에 대한 본격 논의는 3권으로 미룸

#### 요한복음 4:22

이방 예배는 거짓이고, 구원은 약속 받은 백성을 통해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 에베소서 2:12

그리스도 밖의 이방인은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 요한복음 1:4

생명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요한복음 1:10 (참조)

**요한복음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요한복음 11:25**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생명'이라 선언하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요한복음 14:6**

같은 선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마태복음 5:9-10 (참조)**

하늘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함

**마태복음 5:9-10** <sup>9</sup>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sup>10</sup>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요한복음 1:12**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2. 구약 시대에도 중보자께서 제시되었음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도 중보자 없이 자비나 은혜의 소망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언약에 넣으셨지만,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장은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아브라함의 은혜적 후손이다. 자손으로

전에 이미 한 사람은 택함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는 머리이신 한 분 안에서 인정되고, 하나님이 처음 백성을 택하신 일도 중보자의 은혜에 근거한다. 모세의 글에는 이것이 아직 분명한 말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왕정이 서기 전 한나의 노래,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나라가 갈라지고 거의 망할 때마다 되풀이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남긴다”는 약속이 그 증거다. 칼빈의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은 교회의 안전이 그 머리에 달려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도 늘 믿음의 대상으로 조상들 앞에 세워져 계셨다.

1. 구약에서도 중보자 없는 은혜는 없었다
2. 아브라함의 '씨'는 결국 한 분 그리스도
3. 혈통이 아니라 택하심, 택하심은 중보자 은혜
4. 다윗 왕조는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형상'
5. 교회의 안전은 머리(왕)에게 달려 있다

#### 창세기 17:4 (참조)

언약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품음

창세기 17: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 갈라디아서 3:14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씨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 갈라디아서 3:16

육체의 후손이 다 자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 전에 갈린 택하심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 사무엘상 2:10

한나가 왕정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힘을 노래함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 사무엘상 2:35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섬길 충실한 제사장 예언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 시편 2:12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 경외는 아들 공경과 묶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 요한복음 5:23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왕기상 11:13**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32**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 **열왕기상 11:39**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하나 영원히는 아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 **열왕기상 15:4**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 **열왕기하 8:19**

거의 망할 때도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하지 않으심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 **시편 78:60, 67, 68, 70, 71**

실로와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와 다윗을 택하심

**시편 78:60**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시편 78:67**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78:68**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시편 78:70**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시편 78:71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 시편 28:8-9

백성의 구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끊을 수 없이 묶임

<sup>8</sup> 여호와와 그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sup>9</sup>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 시편 20:9

왕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 = 왕 아래 숨은 백성의 확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 시편 118:25-26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구원 소망을 그리스도께 돌림

<sup>25</sup>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sup>26</sup>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 시편 80:17

흩어진 백성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안에서 회복을 구함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 예레미야애가 4:20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잡히자 소망이 끊긴 듯 슬퍼함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주에 사게다 하던 자로다

### 3. 구약의 믿음과 소망은 약속에 근거함

환난 중의 위로와 교회의 구원이 나오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깃발'이 서 있다. 선지자들은 교회의 회복을 말할 때마다 다윗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이 흔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야의 경우가 의미심장하다.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이 곧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믿지 않자, 이사야는 갑자기 메시아 이야기로 넘어가 '임마누엘'을 선포한다. 왕과 백성이 약속을 거부해도, 구속주가 정한 때에 오시므로 언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아모스, 스가랴도 모두 '다윗'과 '왕'과 '한 목자'를 통한 회복을 말한다. 칼빈은 이것으로 경건한 사람들의 소망이 늘 그리스도께만 있었다는 점을 독자에게 상기시키려 한다. 구원은 머리에서 온몸으로 흘러내린다.

1. 위로와 회복의 약속엔 늘 '기름 부음 받은 자'
2. 아하스가 불신해도 임마누엘로 언약은 지속
3. 모든 선지자가 다윗 나라에 구원을 걸었다
4. 구원은 머리(그리스도)에서 몸(교회)으로

#### 하박국 3:13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백성을 구원하러 나오심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 열왕기하 8:19 (참조)

선지자들이 되새기는 다윗 언약

열왕기하 8:19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이사야 55:3-4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만민의 증인

<sup>3</sup>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sup>4</sup>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 예레미야 23:5-6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받음

<sup>5</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sup>6</sup>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 에스겔 34:23-25

한 목자 '내 종 다윗'과 화평의 언약

<sup>23</sup>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sup>24</sup>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25</sup>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 에스겔 37:24, 26

다윗이 왕이 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움

**에스겔 37: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에스겔 37: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 호세아 1:11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 아래 모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 호세아 3:5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 미가 2:13

왕이 앞서 가고 여호와가 선두에 서심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 아모스 9:11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움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 스가랴 9:9

시대가 가까워지자 더 분명하게: “네 왕이 임하신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고이르시며 그워의 베프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 시편 28:8-9

구원이 머리에서 몸으로 흘러감

<sup>8</sup> 여호와와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sup>9</sup>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 4.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필수적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런 예언으로 배워서 구원을 찾을 때 그리스도께 곧바로 눈을 돌리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부패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기본 원리는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칠 수 있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거쳐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지만 중보자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차츰 사라진다.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높아서 죽을 인생은 혼자 거기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단서를 단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경건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영원한 기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고 기르신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칼빈은 교부 이레나이우스의 말도 인용한다. 무한하신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우리 분량에 맞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다. 어떤 광신자들은 이 말을 비틀어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일부만 있다고 했다. 칼빈은 이 말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답한다. 끝으로 칼빈은, 중보자 없이 지극히 높은 창조주를 섬긴다고 자랑한 사람들이 결국 미신에 빠졌다고 말한다. 당시의 이슬람교도들도 창조주를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본다.

**1.** 믿음은 그리스도를 거쳐 아버지께 오른다

**2.** 중보자 없으면 하나님 지식은 덧없이 사라짐

## 5. 창조주 고백만으로는 참 하나님께 닿지 못함

### 마태복음 21:9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소망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요한복음 14:1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골로새서 1:15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대면하심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마침): 율법과 선지서에서 드러난 진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 요한일서 2:23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 얻는 지식이 제대로 서지를 못한다”

## 1.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지향함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약 사백 년 뒤에 주어졌다. 앞 장의 증언들로 볼 때 율법은 백성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오시기까지 오래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굳게 하려고 주어졌다. 칼빈은 여기서 '율법'을 십계명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신앙 생활의 형식 전체로 본다. 모세는 조상들에게 값없이 주신 언약을 없애려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을 거듭 상기시킨 사람이었다. 동물 기름 타는 냄새, 물과 피 뿌리기 같은 제사 의식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스꽝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산에서 보여 준 '본'대로 만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적인 예배만 기뻐하신다. 선지자들이 제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백성을 꾸짖은 것도 율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율법의 본래 목표를 보게 하려는 '참된 해석자'의 일이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부패한 아담의 후손이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동물의 피보다 훨씬 큰 화목이 필요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신자에게 적용해,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드러났다고 가르친다.

1. 율법은 그리스도까지 소망을 붙드는 장치
2. '율법' = 십계명 + 모세의 신앙 형식 전체
3. 의식은 그림자, 목적과 떼면 헛된 일
4. 선지자의 책망은 율법의 목표를 가리킨 것
5. 제사장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

### 갈라디아서 3:17 (참조)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보다 한참 뒤에 옴

**갈라디아서 3: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 출애굽기 25: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 사도행전 7:44

스데반도 같은 '본'을 주목함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 히브리서 8:5

성막은 하늘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 출애굽기 19:6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히브리서 9:12 이하 (참조)

짐승의 피보다 큰 화목이 필요함

히브리서 9:12 이하 <sup>12</sup>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

#### 베드로전서 2:9

'왕 같은 제사장':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2. 율법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음

칼빈은 다윗 왕국도 율법의 일부이며 모세의 경륜(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질서) 안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다윗 왕조라는 '이중 거울'에 그리스도가 비쳐 보였다. 죄와 사망의 노예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설 길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약속된 씨가 오기까지 백성이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는 바울의 말이 맞다. 매일 새 제사를 드리던 시대에 이사야와 다니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약속했고, 시편 110편은 레위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말했다. 십계명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의를 값없이 전가하시고 중생의 영을 주시기까지는 계명이 아무리 의를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율법은 사람이 자기 정죄를 깨닫고 낮아지게 하려고 '더해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찾는 유일한 준비다. 바울이 율법을 좁게(행위의 규칙으로만) 말하는 곳은 행위로 의를 얻는다는 교사들과 논쟁할 때다. 그 밖의 곳에서는 율법 안에 값없는 양자의 언약이 함께 들어 있다.

1. 다윗 왕국도 모세 율법 체계 안에 있다
2. 제사장직과 왕직: 그리스도를 비춘 이중 거울
3. 구약 백성은 초등교사 아래 있는 아이
4. 계명만으론 소용없음, 전가와 중생이 필요
5. 바울의 '율법' 비판은 논쟁 상황의 좁은 뜻

### 갈라디아서 3:24-25

씨가 오기까지 초등교사 아래 있던 백성

<sup>24</sup>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sup>25</sup>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 이사야 53:5-6

매일의 제사 대신 단 한 번의 속죄 약속

<sup>5</sup>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받았도다 <sup>6</sup>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다니엘 9:26-27

같은 약속에 동의함

<sup>26</sup>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sup>27</sup>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 시편 110:4

맹세로 세운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제사장

여호와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 히브리서 5:6

시편 110:4를 그리스도께 적용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 히브리서 7:21

같은 적용: 맹세로 세운 제사장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 히브리서 (장 범위 미상, 원문 '...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께 이끌지 않으면 의식은 무가치함

### 로마서 10:4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목표)이 되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 고린도후서 3:6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갈라디아서 3:19

율법은 범법 때문에 더해짐: 정죄를 깨닫게 함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인간으로서는 도덕법을 지킬 수 없음. 3-5

## 3. 율법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함

도덕법은 우리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주어졌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오히려 우리를 더 변명할 수 없게 만든다. 율법이 완전한 의를 가르친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맞다. 모세가 생명과

것이다. 율법의 요구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멀리서 바라볼 뿐 실제로는 얻지 못한다. 결국 약속이 아름다울수록 우리의 비참함이 더 잘 보이고, 율법이 경고하는 위협만 우리를 쫓아온다.

1. 완전히 지키면 생명: 약속 자체는 참이다
2.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
3. 약속은 멀리서 바라볼 뿐 손에 안 잡힘
4. 율법만 보면 남는 것은 죽음의 위협

#### 신명기 30:19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둬: 약속의 실제성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 4. 율법의 약속의 의의

율법만 보면 남는 것은 정죄와 저주뿐이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얻을 수도 없는 행복을 보여 주며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것 아닌가?” 칼빈의 대답은 이렇다. 율법의 약속에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아무도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그래도 약속이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때 약속은 효력을 낸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값없는 선하심으로 받아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자란 것을 채워 마치 조건을 다 이룬 것처럼 약속을 누리게 하신다. 자세한 것은 3권의 칭의(11장)에서 다룬다고 미룬다.

1.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나?”라는 반문
2. 약속엔 완전 순종의 조건이 붙어 있음
3. 은혜와 믿음 안에서 약속은 효력이 생김

## 갈라디아서 3:10

율법만 보면 정죄와 저주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 5.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터무니없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이 말을 저주하기까지 했다. 칼빈은 '불가능'을 이렇게 정의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뜻이다. 죽을 몸을 가진 성도 중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고,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었다. 로마 교회가 미신적으로 상상하는 '천사보다 순결한 성인'은 성경에도 경험에도 맞지 않는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은혜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을 천사 같은 순결로 높이실 수 있지만, 성경에 선언하신 것과 반대로 하지는 않으신다고 답했다. 칼빈은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서로 싸움 붙이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한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사랑은 앎을 따라오는데 지금 우리는 희미하게만 알기에 사랑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1. '불가능' = 없었고, 작정상 없을 일
2.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3. '완전한 성인'은 성경과 경험에 어긋남
4.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은 대립하지 않음
5. 희미하게 알기에 사랑도 불완전하다

## 마가복음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 전도서 7:20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 열왕기상 8:46 (참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열왕기상 8:46**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 시편 143:2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 욥기 9:2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 욥기 25:4

같은 고백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 갈라디아서 5:17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갈라디아서 3:10

율법 아래 모두 저주: 아무도 다 지키지 못함을 전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 신명기 27:26 (참조)

갈라디아서 3:10의 원래 본문

**신명기 27:26**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마태복음 19:25-26

사람은 못 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sup>25</sup>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sup>26</sup>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고린도전서 13:12

지금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앎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 로마서 8:3

육신으로 연약해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니 하나님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 인간의 죄성을 밝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도록 만듦. 6-9

## 6.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

칼빈은 도덕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기능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의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각 사람에게 자기 불의를 경고하고, 알리고, 깨우치고, 정죄한다. 자기 사랑에 취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재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모른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에 자기를 대 보는 순간 허세가 꺾이고, 무거운 짐 아래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교만이라는 병도 고쳐진다. 혼자 판단할 때는 겉치레(외식)를 의로 여기지만, 삶 전체를 율법의 저울에 달아 보면 순결하다고 여긴 자신이 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특히 탐심은 굴 속에 숨어 있어서 율법이 끌어내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한 채 사람을 망하게 한다.

1. 도덕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2. 첫째: 하나님의 의로 우리 불의를 드러냄
3. 자기 기준으로 재면 자신을 모른다
4. 율법의 저울에 달면 교만이 꺾인다
5. 숨은 탐심은 율법이 끌어낸다

### 로마서 7:7

“탐내지 말라”가 없었다면 탐심을 몰랐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거울과 같다. 얼굴의 얼룩을 보듯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죄를 보고, 그 둘의 결과인 저주를 본다.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할 때 말하는 것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겪는 이 첫째 기능이다. 죄를 분명히 알수록 죄는 더 커진다. 율법을 주신 분께 대한 고집스러운 불순종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고소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일밖에 못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은혜의 성령 없이 율법은 우리를 고소해 죽일 뿐이다. 하지만 칼빈은 이 말이 율법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우리의 의지가 율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충분했을 것이다. 구원을 위해 주어진 율법이 죄와 죽음의 계기가 된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오히려 율법의 뒷받침 없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빛나게 한다.

1. 율법은 거울: 연약함, 죄, 저주를 비춤
2. 죄를 알수록 죄책은 커진다
3. 성령 없는 율법은 고소하고 죽일 뿐
4.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
5. 그래서 은혜가 더 아름답게 드러난다

#### 로마서 3:20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로마서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로마서 4:15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 고린도후서 3:7 (참조)

율법은 '죽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3: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 8.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미치는 효과

율법이 우리 모두의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곧장 절망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 율법을 바르게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율법 앞에서 공포에 빠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은 다른 목적을 가진다. 바울은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두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신 것이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곧 자기 힘을 믿는 생각을 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긍휼께 피해 거기서만 의를 찾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에 상을 주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도 은혜와 온유로 얼굴을 비추신다.

1. 율법을 바르게 받으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
2. 불신자의 공포는 완고함에서 나온다
3. 신자에게 율법은 긍휼로 피하게 하는 길
4. 빈손으로 하나님의 긍휼께 피하라
5. 율법 속 심판자,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운 얼굴

### 로마서 3:19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둬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 로마서 11:32

모두를 불순종에 가두신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 9.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편지에서 같은 말을 했다고 소개한다. 힐라리우스, 아셀리우스, 로마의 인노켄티우스(역자 주에 따르면 교황 인노켄티우스 1세), 발렌티누스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요지는 이렇다.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는 행할 힘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율법은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사람을 작게 만들어 은혜로 피하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명령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영과 문자에 대하여』라는 책을 따로 썼다. 다만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율법의 둘째 기능은 분명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첫째 기능은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작용한다. 그들은 새로워지지 않지만, 율법과 양심 앞에서 두려워하며 스스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것으로 하나님 심판의 공정함이 증명된다.

1.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는 힘을 준다
2. 못 할 일을 명령하심은 구할 것을 알게 하심
3. 아우구스티누스는 둘째 기능을 분명히 다루지 않음
4. 불신자의 두려움도 심판의 공정함을 증언

(직접 인용 없음)

## 10. 율법의 두 번째 기능

둘째 기능은 옳고 그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율법의 위협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누르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손에 굴레가 씌워져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억눌릴수록 속에서는 불길이 더 타오르고, 율법과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래도 이런 강요된 의는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 모두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이 장치로 질서와 평화를 지키신다. 아직 부르심을 받기 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유익하다.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라도 방종을 삼가며 '의의 멍에'에 조금 길들여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게 된다.

1. 둘째: 형벌의 두려움으로 악을 억누름
2. 손은 묶어도 마음은 바꾸지 못함
3.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진 것은 아님
4. 그래도 사회 질서에는 꼭 필요하다
5. 부르심 전의 택자에게도 훈련이 됨

### 로마서 1:4 (참조)

성결(거룩)의 영이 아직 다스리지 않는 상태

로마서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디모데전서 1:9-10

율법은 불법한 자를 위해 세운 것: 억제의 기능

<sup>9</sup>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sup>10</sup>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 11.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함

바울이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부른 것은 앞의 두 기능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초등교사가 인도하는 사람은 두 부류다. 첫째 부류는 자기 덕과 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먼저 비워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율법이 그들을 낮춘다. 둘째 부류는 욕체의 욕망이 날뛰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굴레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곧바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데, 그 기간에 율법의 두려움으로 그들을 지키신다. 이 두려움은 자녀다운 순결한 경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경건을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 칼빈은 하나님을 모르고 더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굴레 아래 막연한 두려움과 존경을 품고 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며 비로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1. 초등교사는 두 부류를 그리스도께 인도
2.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비워서 낮춤
3. 욕망이 날뛰는 사람: 굴레로 붙듦
4. 거듭나기 전 택자를 두려움으로 지키심
5. 노예적 두려움에서 자녀의 사랑으로

### 갈라디아서 3:24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 베드로전서 2:12 (참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까지 지켜 두심

**베드로전서 2: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신자들을 가르치며 권고함. 12-13

## 12. 신자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함

셋째 기능은 칼빈이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이자 율법의 본래 목적에 더 가깝다고 부르는 것이다. 성령이 이미 마음에 계시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신자들에게 율법은 두 가지로 유익하다. 하나는 가르침이다. 신자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 깊이 배우고, 이미 깨달은 것을 확인한다.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종이 주인의 뜻을 살피는 것과 같다. 율법을 더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 다른 하나는 권고다. 율법을 묵상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깨어나고 강해지며, 미끄러지려던 길에서 돌아선다. 신자에게도 굳은 육체가 남아 있어서, 율법은 게으른 나귀를 깨우는 채찍처럼 작용한다. 다윗이 시편 19편과 119편에서 율법을 찬양한 것이 바로 이 기능이다. 이것은 바울의 말과 모순되지 않는다. 바울은 율법 그 자체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말했고, 다윗은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이 하는 일을 말한 것이다. 다윗은 계명과 함께 은혜의 약속을 붙들었고, 율법 안에서 중보자를 보았다. 그분이 없으면 율법에는 기쁨이 없다.

1. 셋째, 가장 주된 기능: 신자를 위한 것
2.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 배우게 함
3. 묵상으로 순종의 마음을 깨우고 붙들
4. 게으른 육체에는 나귀의 채찍
5. 은혜의 약속이 율법을 달게 만든다

**예레미야 31:33**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는 새 언약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히브리서 10:16

같은 약속을 신자에게 적용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 시편 19:7-8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눈을 밝힌다

<sup>7</sup>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sup>8</sup>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 시편 119:105

말씀은 발의 등, 길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5

율례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신자의 기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 13.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릇된 처사임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율법이 '죽게 하는 직분'이라는 이유로 모세의 글 전체와 두 돌판을 내던진다. 칼빈은 이런 생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모세 자신이 율법은 죄인에게는 죽음만 가져오지만 성도에게는 훨씬 나은 쓰임이 있다고 가르쳤다. 율법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율법에 완전한 의의 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면, 바른 삶의 기준이 아예 필요 없든지

몸이 있는 동안 율법의 순결에 이르지 못해도 율법을 피해선 안 된다. 율법은 이제 모든 요구가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는 집행관처럼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는다. 대신 평생 달려갈 목표를 보여 준다. 인생은 경주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1. 신자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거짓
2. 율법은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
3. 삶의 기준은 하나, 영원히 변하지 않음
4. 율법은 집행관이 아니라 목표를 보여 줌
5. 인생은 경주, 목표에 이르게 하실 분은 주님

#### 고린도후서 3:7 (참조)

폐지론자가 내세우는 '죽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3: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 신명기 32:46-47

율법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

<sup>46</sup>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sup>47</sup>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 시편 1:2

율법을 묵상하는 의인: 모든 시대의 원리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고린도전서 9:24-26

인생은 목표를 향한 경주

<sup>24</sup>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sup>25</sup>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sup>26</sup>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경주(競走)다”

율법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들. 14-17

#### 14. 율법의 폐지된 면과 유효한 면

율법은 신자를 권고한다. 그 힘은 양심을 저주로 묶는 힘이 아니라 게으름을 흔들어 깨우고 불완전함을 채찍질하는 힘이다. 많은 사람이 “신자에게 율법(도덕법)은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그 말이 옳은 경우는 율법이 더 이상 신자의 양심을 위협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뜻일 때뿐이다. 율법이 무엇이 옳은지 더 이상 명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굳이 부정하신 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오해가 퍼져 있었던 것 같다. 그 오해는 아마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데서 나왔을 것이다. 오류는 대개 진리를 계기로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율법에서 폐지된 것과 여전히 구속력이 있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율법은 여전히 가르치고, 권하고, 책망하고, 바로잡는다.

1. 폐지된 것: 양심을 정죄하는 힘
2. 남아 있는 것: 무엇이 옳은지 가르치는 힘
3. 오류는 대개 진리를 오해해서 생긴다
4.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심

### 로마서 7:6 (참조)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서 벗어남'의 바른 뜻

**로마서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 마태복음 5:17-18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오심, 일점일획도 그대로

<sup>17</sup>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sup>18</sup>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디모데후서 3:16-17 (참조)

율법은 지금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

**디모데후서 3:16-17** <sup>16</sup>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sup>17</sup>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15.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의 의미

바울이 말하는 '폐지'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양심을 속박하는 율법의 힘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율법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집행한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 바울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의의 근거를 죄 용서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 용서를 통해 율법의 엄격한 집행에서 풀려난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 아래 나서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하고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셨다. 그 결과 우리 양심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은 권위를 조금도 잃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존경과

2. 율법은 한 점만 어겨도 저주를 집행함
3.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으심
4. 목적은 자녀의 지위를 주시려는 것
5. 율법의 권위는 그대로, 존경과 순종도 그대로

#### 갈라디아서 3:10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 신명기 27:26 (참조)

갈라디아서 3:10의 원래 본문

신명기 27:26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 신명기 21:23 (참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신명기 21: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 갈라디아서 4:4-5

<sup>4</sup>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sup>5</sup>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16. 의식법

의식법은 사정이 다르다. 의식의 '효력'은 폐지되지 않았고 '사용'만 폐지되었다. 그리스도는 의식들을 끝내셨지만 그 거룩함을 깎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의식은 구약 백성에게도 빈 껍데기였을 것이다. 또 의식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왜 있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은 의식이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희미하던 하늘의 복이 이제 분명한 형상으로 드러났다는 표시다. 그렇다고 족장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이 멀리서 윤곽만 보던 것을 우리는 대낮의 빛 속에서 본다는 뜻이다. 옛 제사에도 속죄가 진정으로 약속되어 있었고 언약궤도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의 보증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모두 그림자였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의식의 사용을 폐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 효력을 확증하셨다.

1. 의식: 사용은 폐지, 효력은 확증
2. 의식은 그림자, 실체는 그리스도
3. 휘장이 찢어짐: 희미한 것이 선명해짐
4. 족장들도 소망이 있었으나 멀리서 보았다
5. 끝났기에 오히려 그 가치가 보인다

### 골로새서 2:17

의식은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 히브리서 10: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 누가복음 16: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 이후 하나님 나라 복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 요한복음 1:17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 17. 골로새서의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골로새서 2장 13~15절은 “우리를 거스르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마치 율법의 명령 전체가 우리와 상관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해석은 이것을 도덕법으로 보고, 도덕법의 가르침은 남고 가혹함만 폐지되었다고 읽는다. 칼빈은 이 해석이 틀렸다고 본다. 둘째 해석은 이것을 의식법으로 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문 에베소서 2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읽는다. 칼빈은 둘째 해석이 첫째를 바르게 비판했다고 인정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에베소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교제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반면 골로새서는 모세 규례를 강요하는 거짓 사도들에 맞서 문제의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른다. 의식에는 죄를 없애는 '대속'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제물을 바친 것은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고백이었고, 정결 예식은 “나는 더럽다”는 고백이었다. 그러니 의식을 반복할수록 자기 죄를 기록한 '증서'를 갱신한 셈이다. 그래도 구약 백성은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은혜에 참여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처럼 다시 의식에 묶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는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죄를 확인만 하던 그 의식들을 없애셨기 때문이다.

1. '증서를 지움'은 도덕법 폐지가 아니다
2. 에베소서 2장보다 깊은 뿌리를 다룸
3. 의식은 대속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었다
4. 반복할수록 죄의 증서를 갱신한 셈
5. 다시 의식에 묶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음

#### 골로새서 2:13-15

문제의 본문: 증서를 지워 십자가에 못 박으심

<sup>13</sup>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sup>14</sup>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sup>15</sup>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 에베소서 2:14-15

둘째 해석의 근거: 의식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sup>14</sup>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sup>15</sup>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 히브리서 10:1 이하 (참조)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해마다 기억나게 함

히브리서 10:1 이하 <sup>1</sup>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할 수 없느니라 ...

### 레위기 16:21 (참조)

속죄일에 죄를 고백하는 의식

**레위기 16:21**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 히브리서 9:15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신 중보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히브리서 10:3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함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 골로새서 2:16 이하

의식법에 다시 묶이지 말라는 경고

<sup>16</sup>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

 **오해와 반론**



 **용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을 화해시키는 분. 칼빈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한다.

### 구속(주)

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내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구속주다.

###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데서 나온 말이다.

### 의식법

제사, 정결 예식, 성막처럼 구약 예배의 형식을 정한 규정. 그리스도가 오신 뒤 사용은 끝났다.

### 도덕법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변하지 않는 기준.

### 그림자 / 예표

나중에 올 실체(그리스도)를 미리 희미하게 보여 주는 모형. '예표'는 앞서 보여 주는 표라는 뜻이다.

### 초등교사

옛날 부잣집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가고 감독하던 종(개역성경 '몽학선생'). 율법이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역할을 가리킨다.

### 전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쳐 주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다.

### 중생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겉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이 바뀌는 일이다.

### 율법의 세 기능

① 죄를 비추는 거울 ② 악을 억누르는 굴레 ③ 신자를 가르치고 깨우는 안내자이자 채찍.

✅ 이 편의 결론



-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중보자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구약 성도의 소망도 언제나 그분을 향해 있었다.
-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소망을 붙드는 장치였다.
- 도덕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 악을 누르는 굴레, 신자를 가르치고 깨우는 안내자라는 세 가지 일을 한다.
- 신자에게 폐지된 것은 율법의 정죄하는 힘이지 가르침이 아니다. 의식법은 사용이 끝났고 효력은 그리스도로 입증되었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